

개점휴업 K뱅 운명 가를 26일 法 통과시 KT 자본 수혈 가능

삼성생명 순익 40% 감소 일회성 요인 감안 700억 ↑



26일 임시국회서 정상화여부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요건 제외 골자 심사중단 사유 해소시 심사 재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예정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된다.

운명의 날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26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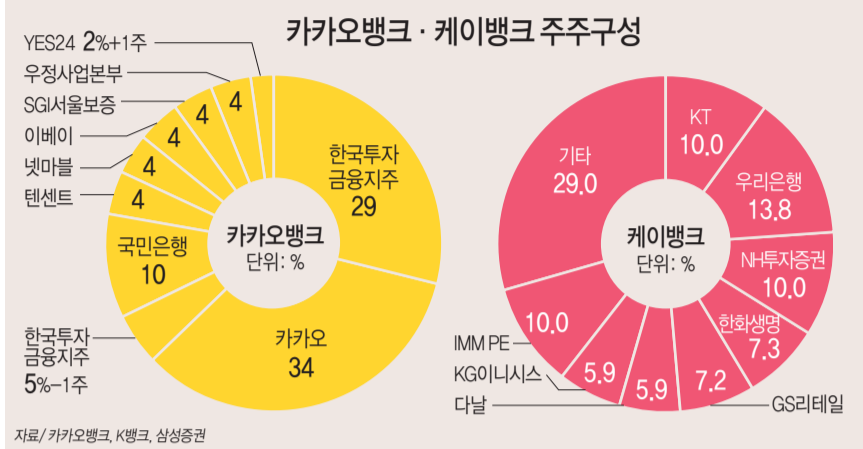
당초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될 당시만 해도 정상화 기대감이 높았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법사위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제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가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소수의 의원만 반대의견인 만큼 표결로 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결과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가 26일로 예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실제로 운용하다 보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서 은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해도 새로운 참여자가 안나오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기존 취지를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영업 시작 초기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34%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심사 중단으로 276억원의 브릿지 증자만 이뤄졌다.

케이뱅크는 여러 증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역시 KT의 자본 투입이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내내 시달렸던 자본난도 한 번에 해결된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증자로 자본금을 1조8000억원까지 늘렸지만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본력 격차는 그대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1100만명을 넘어섰고, 수신과 여신액은 각각 20조7000억원, 14조9000억원(잔액기준) 규모다.

반면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2만명이다. 수신과 여신은 각각 2조1600억원, 1조3800억원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라 순익 ↓ 중저가상품 등 신계약 늘어 평가 무난

삼성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0% 가까이 줄었다. 이는 2018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695억원 증가한 셈이다.

1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516억원으로 전년(1조7337억원) 대비 39.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2018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요인(7515억원)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95억원 늘어난다.

매출액은 31조8040억원으로 전년(32조2408억원) 대비 1.4%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5833억원에서 1조5266억원으로 51.5% 감소했다.

생보업계는 저금리·저출산·저성장장의 '3저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확정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여담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지난해 중저가 상품,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신계약이 늘면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올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신사업, 신시장을 찾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올해 5대 목표로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질(質)과 효율' 중심의 영업문화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 ▲신사업 발굴 및 신시장 개척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정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보험설계사 영업 본부를 돌로 나누고 사업부를 해체하는 등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기존에 단일 조직이던 FC영업본부를 1본부, 2본부로 나눈다. FC1~4사업부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기업 영업을 담당하는 전략영업본부도 재편하기로 했다. 단일 조직이었으나 1, 2본부로 이원화된다. 전략영업본부는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FC영업본부와 달리 기업거래(B2B)를 맡고 있다.

분위기 반전도 꾀한다.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자산운용에 특화된 전영목 삼성자산운용 대표(부사장)가 이끌어 간다.

전 신임 사장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금융권 전반에 걸친 경력을 쌓으며 금융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인목을 갖춘 인물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생명 본관

온라인투어

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

터키일주(직항) 특급호텔 8/9일 699,000~ 2/21~ [선착순 특가]

유럽 단체 / 조기예약 할인진행 02) 3705-8150

발칸 2국/동유럽 4국(2대 야경+아울렛) 9일 1,290,00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지브롤터 12일 1,690,000~

서유럽 3국 9일 1,299,000~

서유럽 3국 10일 1,790,000~

서유럽 4국/10/12일 1,890,000~

이집트 완전원주 10일 1,899,000~

동유럽 핵심 3국 7일 999,000~

발칸/동유럽 11/12일 1,390,000~

그리스/터키일주 9일 1,290,000~

스페인/포르투갈 9일 1,599,000~

단체 / 조기예약 할인진행 / 공동구매 항공권 가능 02) 3705-8100

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298,000~

방콕/파타야/바나절자유 5일 418,000~

보라카이/세일링보트/마사지 4/5일 348,000~

나트랑/무이네(판티엣) 5일 498,000~

푸켓/변화기워터 특급리조트 5일 498,000~

세부/전신마사지 4/5일 238,000~

라오스/비엔티엔/방비엣 5일 448,000~

치앙마이/치앙라이 5/6일 438,000~

코타키나발루/선셋반딧불 5일 388,000~

호주/뉴질랜드 부산/대구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40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8,000~

청정하 뉴질랜드 북섬 6일 1,398,000~

시드니/센트럴코스트/포트스탠 6일 1,049,000~

시드니/골드코스트/뉴질랜드 12일 2,599,000~

미주/하와이/중남미 부산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80

시애틀/캐나다 로키 7일/8일 1,049,000~

미서부/6대캐년(모뉴먼트밸리) 10일 1,590,000~

미동부/캐나다(폭포부속) 10일 1,990,000~

미동부/캐나다(3대야경+퀘벡 2박) 10일 2,290,000~

남미(미과수/우유니) 4국 11일 5,490,000~

남미 5개국(우유니사막) 13일 6,590,000~

일본 02) 3705-8120

벳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249,000~

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

북해도 소문코 비에이 4일 699,000~

NONO 패키지

안해서 행복한 여행 NO 팁 · NO 옵션

괌 사이판

남태평양

동남아

유럽

미주 특수

괌 웨스턴 호텔 4일/5일 789,000~

사이판 피에스타 5일 769,000~

뉴질랜드/시드니 10일 2,190,000~

뉴질랜드 남북섬 9일 2,390,000~

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1,038,000~

상가포르/센토사/오전자유 5일 1,698,000~

나트랑/프리미엄 5일 979,000~

브루나이/7성급 호텔 4일 1,199,000~

하노이/하롱베이/옌뜨 5일 848,000~

보라카이/5성급리조트 4/5일 748,000~

서유럽 4국/파리야경 10일 2,690,000~

동유럽+발칸 6국 11일 1,990,000~

하와이(관광/자유) 6/7일 1,290,000~

중남미(6국/멕시코+쿠바) 18일 9,790,000~

■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하는 가사, 가이드경비비, 0003로 표기(상세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 여행상품 가격표에 포함: 유류할증료(항공권/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필수 경우 모두 포함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가능(*510~5300달러),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참여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onlinetour.co.kr) ■ 여행기간: 2020년 2월 19일~2020년 2월 27일